

## 일상의 투영(Reflections of Everyday)

시니 모노넨(Sini Mononen)

2017년 봄, 듀오 아티스트 로와정(RohwaJeong)은 헬싱키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HIAP)에 입주하였다. 헬싱키에 머무는 동안 로와정은 예술가로서, 일상을 다루는 작품들을 만들었다. 로와정은 예술의 과정과 방법 -새로운 환경이 예술적인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작업에서 그들은 우연히 발견한, 때로는 지극히 평범한 사물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된 예술작품은 아틀리에 내의 작업 중인 작가와 연결된다. 실제로, 장소적 특수성은 로와정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정 장소의 역사는 개념적이고 종종 비합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이 예술가 커플의 작품들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로와정은 2007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이름 안에는 노유희(1981)와 정현석(1981)의 이름이 담겨 있다. 로와정이라는 이름을 만든 이유는 두 명인 아닌 한 명의 작가와 같은 느낌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이다 ; 노유희와 정현석 작가가 둘이 아닌 하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두 개인 사이의 경계를 통합하고 하나의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창조적 과정의 역학을 연구하기 위함이다.

90년대 초반, 두 사람은 국민대학교(대한민국)를 재학 중에 만났다 ; 1999년 입학한 노유희가 정현석의 일 년 선배이고, 두 사람은 모두 조각을 전공했다. 정현석은 모교를 전통적인 한국의 예술학교라 설명하는데, 학생들이 스승에게서 돌과 같이 과거 모더니즘 조각의 필수적인(그리고 무거운) 재료나 거푸집을 만드는 방법 등, 조각의 기본적인 기술을 배운다는 말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로와정은 전통적인 조각에서 벗어나 좀 더 개념적인 작업을 이어갔다. 이들이 사용하는 매체에는 회화, 설치, 비디오, 사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통 가벼운 구조로 이루어진 작품들의 일관된 주제는 과정이다. 로와정에게 과정은, 두 개인 사이의 예술적 과정,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환경에 따른 일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과 성장과정과 같은 다양한 인간 환경의 미시사에 주목하는 -동시에 무겁지 않은 재료로 이루어진 개념적인- 작품들을 생산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위시 리스트(wish list)로서의 장소

지난 10년간 로와정은 예술적 공동작업으로서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탐구하였다. 2017년 봄, 로와정은 그것에 다시 주목하였다. 로와정에게 일상은 예술작업의 기초가 된다. 일상의 틀은 예술가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술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구성한다.

장소의 변화는 일상의 변화를 가져온다. 헬싱키에서, 로와정은 도시 중심에 위치한 케이블 팩토리(Cable Factory)에서 작업해 왔다. 그들의 활동지는 종종 수오멘리나로 확장됐는데, 그곳은 시내에서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닿을 수 있는 섬이다.

로와정은 수오멘리나 내에 있는 자신들의 위치를 지도로 그렸다. 갤러리 아우구스타(Augusta)와 그 주변 환경은 연필로 가볍게 종이 위에 스케치되었다. 이 지도 상에 로와정은 자신들의 작품과 그 위치를 그려 놓았다. 3개월의 레지던시 기간에 완성된 4 개의 작품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상과 장소를 말해주고 있다.

각 작품은 작가로서 지극히 평범한, 매일의 일상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chair chair egg (2017)" 제목의 작품은 두 개의 의자가 서로 부둥켜안고 있는 모습으로 삶은 계란 위에 가볍게 기대쳐 있다. 두 개의 의자는 갤러리 공간 밖, 건물 맞은편에서 찾은 것으로, 중간에 위치한 갤러리 공간 내에서 만나게 된다. 계란은 두 의자가 만나는 지점에 끼어들었는데, 로와정에 따르면 이는 레지던시에서의 일상을 닮아 있다 말한다 ; 그들의 매일 아침은 계란을 삶는 것으로 시작된다.

수오멘리나에 설치한 다른 작품으로 "grocery list (2017)"가 있는데, 이 작품 또한 유사한 주제를 이어나간다. 이 작품은 벽 위에 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종이를 잘라 만든 글씨로 이루어진 "식료품 목록"은 일종의 위시리스트로 이해된다. 즉, "우유", "계란", "사과", "커피" 등 식재료 품목 사이에 위치한 "통찰력", "구조" 등의 단어는 예술가의 삶에서 필요한 덕목이다.

## 이원론적 시

두 작가 간에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생각은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완성된 3 점의 자화상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첫 번째 자화상은 두 개의 오픈셀 코어로 이루어진 총가방으로, 하나는 헤어 드라이기, 다른 하나는 물 분사기의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적 이원성은 예술가 커플의 역학을 반영한다. 2013년에 작업한 다른 자화상은 파리의 레지던시 기간 동안에 완성되었는데, 작품은 천장에서 새는 물방울 하나하나로 채워져 가는 양

동이를 촬영한 비디오이다. 양동이는 그것이 반사되어 반영되는 창문가에 놓여져 있다. 영상을 주목하면 밖은 비가 내리는 중임을 알 수 있고, 반사된 양동이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은 천장을 거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빗물이 바로 낙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자화상은 시적 표현과 닮아있고, 이는 로와정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이와 비슷하게 로와정은 어린 시절 기억과 성장 과정을 다룬 작품들을 통해 작은 아이디어에 집중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서울에서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창 시절 작은 우유 한 갑을 배급받는 하루 하루가 반복되어 왔다. "Good Answer (2015)"라는 작품에서, 같은 제목의 문구가 갈색 밧줄로 캔버스 위에 꿰매져 있는데, 늘어져 떨어진 밧줄의 끝에는 우유 한 갑이 묶여져 있다. 우유갑의 무게로 인해 끈은 당겨지고, 이로 인해 구겨진 캔버스 위의 글씨는 거의 읽을 수 없게 된다.

로와정의 작품은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다. 이 예술가 커플은 관람객에게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한다. 하지만 작품들은 짧게 살아온 순간과 일상적인 독특함 들을 다룬 시각적 시(時)로 보여진다.

## 들의 반영

로와정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보면 반영과 이원성이라는 주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로와정은 전시 공간의 창턱에 두 개의 동일한 화분을 놓았다. "Twins"라는 작품에서 보여지는 동일함은 사실 실제 생명을 지닌 화분 식물과 그와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조화이다. 그 인공성은 원래 화분이 모양과 빛을 잃으면서 드러나게 된다. 시각적으로 동일한 오브제를 이용한 미러링(mirroring) 방식은 로와정의 여러 작품을 통하여 볼 수 있다.

로와정의 최근 자화상은 2016년에 완성되었다. 이 작품은 모빌 조각으로 황동 판과 얇은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은 흡사 가계도와 같다. 즉, 맨 위에는 기다란 황동 판이 가로로 있고, 그 양 끝에는 그보다는 작은 판이, 그리고 작은 봉의 양 끝에는 그보다 더 작은 판이 달려 있다. 이러한 패턴은 계속 이어져 종국에는 바닥을 향해 늘어뜨린 사슬에서 끝이 난다.

자화상으로서 이 작품은 한 신념이 갖는 양면성, 혹은 두 명의 주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뿐 만 아니라, 확장 가능한 과정을 가지고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타자를 닮아 있다.